





# 화 산 고

감독 김 태 군  
 각 본 서 동 현 , 정 안 철 ,  
 김 태 군 , 박 현 수 ,  
 허 군  
 촬영 최 영 택  
 조명 정 영 민  
 음악 박 영  
 미술 장 근 영 , 김 경 희  
 출연 장 혁 , 신 민 아 ,  
 김 수 로 , 권 상 우 ,  
 공 호 진 , 정 상 훈 ,  
 김 형 종 , 채 시 아 ,  
 허 준 호

취재 최은영 기자

사진 손진원

전교사화(戰敎師禍)로 야기된 17년간의 골육상쟁...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자율을 가장한 방종이 판을 치니 언제부터인가 "사비망록(師備忘錄)"을 얻는 자, 난세(亂世)를 평정하리라는 전설이 도탄에 빠진 학원무림(學園武林)을 슬렁이게 하고 있었다.

"백묵 던지지 마란 말이야!"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닌 어떤 시간, 현실과 비현실의 모호한 경계선에 신비하게 떠 있는 학교 - 화산고. 교실에서는 분필이 총알처럼 날아다니고 운동장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공중에 붕 떠서 기(氣)대결을 펼친다. 전교생이 무술의 달인인 화산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기를 주체 못해 번번이 퇴학당한 경수에게 이번 전학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자신에게 숨겨진 엄청난 기운을 감추고 가능하면 어떤 일에도 개입하지 않으려 애쓰는 경수. 그러나 전설의 '사비망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암투 속에서 과연 그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베일에 싸여있었던 순수 제작비만 40억을 상회하는 10대 무협영화 <화산고>는 한 프레임도 예외 없이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시각적인 쾌감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7월 초의 크랭크업을 앞두고 막바지 촬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덟 번이나 퇴학당한 수상한 고등학생 경수(장혁)가 아홉 번째 학교인 화산고로 전학 오면서 벌어지는 이 판타스틱한 모험담은 시원스런 와이어 액션과 더불어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현란한 이미지와 사운드의 격전장이 될 것이다. 장혁, 신민아, 공효진 같은 청춘 스타가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권상우, 채시아와 같은 풋풋한 신인들이 화산고등학교의 교정을 꽉 채운다. 양수리 종합 촬영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세트(30개)를 지을 정도로 다양한 학교 안의 공간을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줄 <화산고>는 영화 전체의 톤을 이루는 '다크 올리브 그린'의 색깔로 우리 걸을 찾아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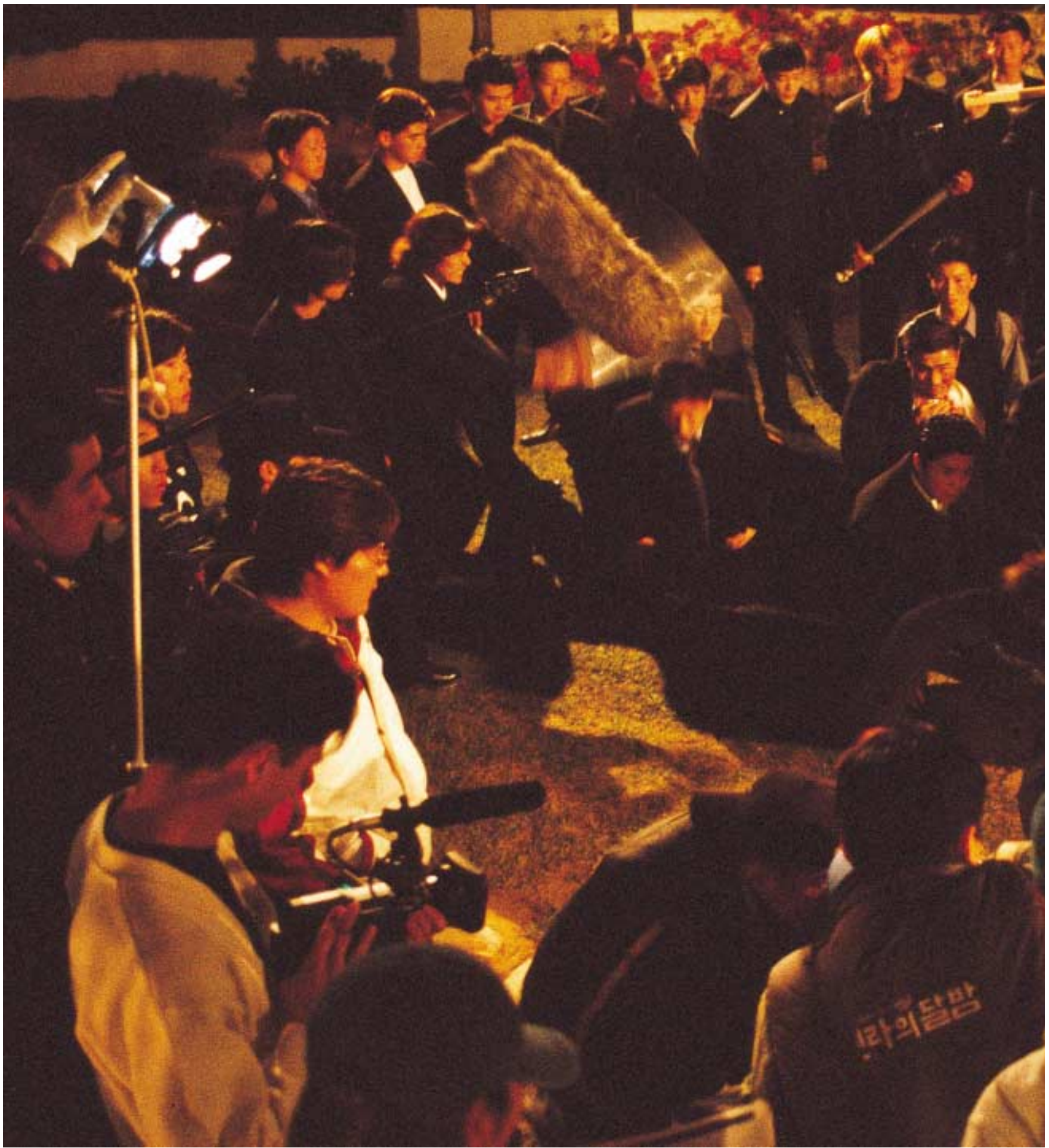




남도의 끝자락, 전라남도 도양은 소록도가 마치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떠 있는 작은 해변 마을이다. 푸르게 펼쳐진 논밭의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는 오래된 폐교는 조용한 초 여름밤, 전설 속의 학교로 변신하였다. 운동장 양 사이트에 자리잡고 있는 소위 '야구장 조명판'에 달린 거대한 천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엄청난 살수 크레인이 동원된 비 오는 대결 장면은 밤이 깊도록 쉬이 끝날 것 같지 않다. 와이어에 매달려 고난도의 동작을 연기해야하는 장혁은 힘겹게 젖은 머리를 튄다. 김태균 감독은 틈만 나면 운동장을 걸어나다니며 생각에 잠기고, 장혁을 매단 와이어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일군의 엑스트라들이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 일제히 매달려 장혁의 호흡에 자신들의 호흡을 맞춘다. 허공에 솟아오른 장혁이 멋지게 공중제비를 돌아 착지하자,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지고, 모니터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대결상대 허준호는 그에게 은근히 말을 건넨다. "혁이 액션 죽이는데! 앞으로 액션영화 출연하려면 고생 깨나 하겠다."









취재 장훈 기자

사진 조진철

감독 김상진

각본 박정우

촬영 정광석

조명 신확성

음악 손무현

미술 조성원

무술 김영규

출연 이성재, 차승원,

김혜수

# 신라의 달밤



고등학교 시절, 각각 모범생과 문제아로 극과 극을 달리던 두 학생의 뒤바뀐 인생. 모든 것은 경주 수학여행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10년 후,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는 매머드 폭력배 조직의 전도유망한 2인자가 된 모범생 박영준(이성재)과 고등학교의 호랑이 선생님이 된 문제아 최기동(차승원)이 다시 한 번 경주에서 마주친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다시 한 번 뒤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라면집 여주인 민주란(김혜수)을 동시에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3인조 로드무비의 전통을 유쾌한 슬랩스틱 액션의 상황극으로 극복한 데뷔작 <돈을 갖고 튀어라>에서부터 코미디와 액션을 조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었

던 김상진 감독은 <깡패수업>과 <투캅스 3>를 거쳐 <주유소 습격사건>에 이르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의 다섯 번째 영화가 될 <신라의 달밤>도 이러한 자신의 장점을 다시 한 번 살려내는 영화이다. 그러나 <신라의 달밤>은, 액션과 등장 인물들이 주유소라는 하나의 무대를 입퇴장하며 시추에이션들을 이어가는 <주유소 습격사건>식의 '논스톱 릴레이 코미디'보다는 교동창인 '모범생 깡패'와 '티프한 선생'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알가닥 여자'라는 삼각구도가 만들어내는 드라마적인 요소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주유소 습격사건>이 주유소라는 하나의 반항점을 두고 바통을 바꾸며 달리는 계주의 영화였다면 <신라의 달밤>

>은 경주라는 보다 커다란 무대를 삼인사각으로 완주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광석 촬영감독이 수퍼 35mm 카메라를 통해 만들어내는 와이드 앵글의 달리 쇼트들은 액션의 동선을 함축적으로 담아냄과 동시에 인물들의 유기적 관계들을 보다 적절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김상진 감독은 과장과 비현실적인 구도를 사용하여 만화적 캐릭터와 픽션의 극대화를 피하고 있다. 디테일에 집중하는 조밀한 연기보다는 과장과 강조를 중심으로 한 선 굵은 연기를 강조하는 김상진 감독의 연기연출이 이성재와 차승원 그리고 김혜수와 조우하여 의도했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모든 준비를 끝낸 <신라의 달밤>이 지금 우리 앞에 섰다.





경주의 보문단지. 밤 하늘에 덩그러니 뜬 달과  
 기와집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전한다. 어  
 디션가 불국사의 종소리라도 들려 올 것만 같다.  
 그런데 걸음을 멈춘 나그네의 눈에 들어오는 것  
 은 천년고도의 옛성터가 아니라 달빛을 받으며  
 패싸움을 벌이는 일군의 사내들이다. 아니, 자세  
 히 보니 한 사내를 가운데 둔 일방적인 집단구타  
 다. 열심히(?) 맞고 있는 주인공은 사랑과 우정  
 을 위해 마천수(이원종) 일당의 소굴로 훔칠단신  
 뒤편 박영준(이성재). 현장에는 클라이맥스 도  
 입부에 해당하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설  
 치된 달리 트랙과 수퍼 크레인이 보인다. 잘게  
 잘라가는 컷트와 복잡한 액션의 합을 맞추는 사  
 이 신라에서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서서히  
 새벽 냉기가 몸 속을 파고들었지만 촬영은 계속  
 되었다, 감독의 OK 사인이 나올 때까지...

